

## 용산구, 10억 투입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본격 추진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 하반기부터 시·구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노후 보도 재정비, 보행 친화적 디자인 도로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용산경찰서, 학교, 학부모와 협력해 일효초 등 6개 학교 통학로를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4개 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원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용산초등학교 및 국립맹학교 인근 활주로형 횡단 보도 설치 ▲한강초등학교 정문 주변 보도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서빙고초등학교 인근 보도 확장 ▲선린중학교 정문 앞 보도 신설 ▲한강중학교 앞 모퉁이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대 및 보도 확장 등이 있다.

하반기 사업은 이태원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강변유치원, 충신유치원 등 4곳의 특성에 맞춰 추진된다. 이태원초는 노후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

린이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도로를 도입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심 승·하차 구간도 신설한다.

남정초와 강변유치원은 이격식 미끄럼방지 포장, 디자인 도로 반사경, 노란전주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인다.

충신유치원은 승·하차 구간과 횡단 보도 대기공간에 디자인 보도블록을 설치해 학부모 차량 혼잡을 줄이고, 보광초에서 해제된 교통단속용 카메라를 이전에 실효성을 강화한다.

##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2,550세대 단지로 천지개벽 신호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

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지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

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셋방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도 조성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접수 이후 주민공람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구는 9월 1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향후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 입주 차세대 유니콘 30개사 선정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 AI 특구 내 조성 중인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해 대한민국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재 AI 특구 내 최근 준공된 강남데이터센터의 오피스동을 임대해 운영 예정인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는 서초구가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위한 입주공간 마련과 경영·기술 지원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시설로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주변 시

세 5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8~56평대 넓은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분사 이전이라는 까다로운 입주 조건에도 지난 8월까지 전국 60여 개의 걸출한 AI 기업들이 대거 지원하며 이미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바 있다. 구는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 ▲글로벌 성장 잠재력 ▲사업성 등을 두루 갖춘 최정예 30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선정된 30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1,217백만 원(최고 12,327백만 원), 평균 특허 보유 건수는 7.17건(최고 59건)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도 5개나 되는 등 이미 검증된 기업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싼 임대료로 인해 기업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마포 등 수도권 소재 기업과 입지와 교통 불편 등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스타트업의 신청이 줄을 이었고 현재 추가모집에 대한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 세계 최초 대도시형 대드론 체계 구축

“세계 최초 대도시형 대드론 체계 구축… 드론 방어 선도도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AX(AI Transformation) 시대 드론 전쟁,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에 참석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포럼은 서울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안보 관련 토론회로 이번이 5회째다. 그동안 ▲북한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메가시티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서울 시민 안전과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해왔다.

5차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우현 수도방위사령관(직무대행)을 비롯해 정부 부처·산업계·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임을 직접 목격했고, 북한의 드론 전술 고도화 등 드론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며 “이제는 실전형 민·군 협력방안부터 시·군·자치단체와 무력화 기술까지, 대응체계를 구체화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드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방사와 함께 세계 최초 대도시형 대드론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히며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을 검증하고, 민·관·군이 함께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

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AI 기반 기술과 기관관 대응 프로토콜 등 실행 중심의 전략을 통해 현실적 위협에 강한 도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서울을 드론 방어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양육 야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철남 1방공위원장, 김인찬 창끝전투학회 연구위원이 차례로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대드론 체계 구축방안과 군의 기술·전력자산 역할 등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군 통합 드론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 친화적이고 인포·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에는 센서 및 물리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관련 제도와 법령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3차 안보포럼'에서 제시된 '서울형 대드론 체계 구축 방향'을 바탕으로 1년여 간의 연구와 실무협의, 실증훈련을 거쳐다. 이를 기반으로 '26년 전반기 시범사업 추진(여의도)', '27년 권역별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대드론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 기술 중심 도시방어 체계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성 기자

## '상암 재창조' 신호탄 쏜다...서울시, 문화비축기지 시작

내년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선도사업 공고... 대관람차 사업, 안전·안정성 검증 진행중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에 담긴 '펀 시티(Fun City)' 선도사업 대상지 '문화비축기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을 만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문화비축기지'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선,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상암 재창조 '문화예술' 분야 코어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상암 평화의공원 일대 '펀 시티' 계획을 내놓고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시장 등 주변에 선도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9.20.(토) 문화비축기지에서는 재개장의 포문을 여는 세계적 음악 축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아울러 시는 '상암 재창조' 단계적 실행을 위해 상암택지개발지구 마지막 대규모 부지인 DMC 랜드마크용지 개발과 평화의공원에 들어설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 등 상암 일대를 글로벌 창조 도시로 탄생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착실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일(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UMF)'은 문화마당에 메인 스테이지, 댄크에 특별프로그램(울트라 파크 스테이지, 레지스탕스) 등 총 3개 무대가 마련된다. 이번 축제에는 총 7개국, 23개 팀(국내 14팀, 해외 9팀)의 아티스트가 참가한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은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로 국내에선 '12년부터 서울·용인·인천 등에서 개최, 서울에서는 '22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탱크 민간운영자를 통해 문화비축기지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한편 문화비축기지 재개장을 비롯해 상암 평화의공원 일대 '펀 시티' 조성 사업은 순항 중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평화의공원 내 위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복합 개발 하기 위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공고를 낼 방침이다.

민간 재원과 창의적인 사업계획으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넓

은 시민 휴식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공모 형식을 적용해 상암 활성화를 견인할 사업 제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암택지개발사업 후 남은 마지막 퍼즐인 대규모 미매각 부지 'DMC 랜드마크용지'도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DMC 대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간의 혁신성을 담아내면서도 시의적절한 사업계획을 유도해 매각을 성공시킴으로써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DMC와 상암 일대를 직·주·락(職·住·樂)이 공존하는 일상 활력 도시로 재도약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DMC 랜드마크용지' 활용은 오랜 기간 표류해 온 핵심 부지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해 줄 뿐 아니라 DMC의 위상을 높이고 서북권 균형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성 기자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높이·용적률 개선

9월 20~2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한강버스 여의도선착장 4층 루프탑에서 진행

서울 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란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분)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동북권 '강동·상계와 동남권 '강남·잠실'까지 확대된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 촉진을,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해외 기업 유치를 노린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한다. 법정 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에는 정

비구역으로 지정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존 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한다. 광역 중심과 마포 공덕 지역은 기존 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존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된다. 준공업지역 역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허용 용적률 상향에 맞춰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댓값을 상향(100→150%)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설로서 산후 조리원과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200%), 정비사업에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를 신설한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를 완화한다.

증가하는 서울 관광 수요를 반영해 숙박 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시는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시 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 주사하

## 경기공유학교

# 아이들

세계인의 열림마을도 2025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대상 수상

대상

자율준 학생  
용인미르아이 경제대 연계 AI SW 공유학교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업

경기공유학교 검색

gong-u.go.kr

**경기공유학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생 맞춤수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경기도 학생에게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33~33 학생 및 동등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홈페이지 신설**

• 3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지역공유학교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지역별 상시 모집 중)

• 프로그램 출결·이수 내역 확인 가능